

PHOTO NEWS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산림협력 자원외교로
전탄소 녹색성장 기틀 마련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중국과 몽골을 방문하여 몽골 마직 툰갈락(Majig Tungalag) 임업청장, 중국 가치방(賈治邦) 임업국장(차관급)과 루하오(陸昊) 공청단 제1서기를 면담하여 사막화방지조림, 기후 변화협약의 산림분야 대응, 탄소배출권 연계방안에 대하여 공동 협력키로 하였다.



국립수목원 및 산림역사박물관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하영제), 행정도시건설청(청장 남인희),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3일 행정도시건설청에서 행정도시 내 국립수목원 및 산림역사박물관 조성을 위한 협약(MOA)을 체결했다.

국립수목원과 산림역사박물관은 행정도시 중앙녹지공간 안에 약 65만㎡ 규모로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성해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개원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10일 오전 충북 충주시 수안보 면에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각종 식물 중 우수품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한편 품종에 대한 권리보호 활동을 펼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개원식을 가졌다.



특히 해외조림에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을 위해 정부차원의 국제산림협력과 국내기업의 해외산림자원개발 현황, 탄소배출권조림 등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한 국제적 논의동향 등 다양한 해외산림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문화재 안전지킴이 협약식

일시 : 2008년 10월 1일

장소 : 해인사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체결



산림청, 캄보디아 해외조림 투자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하영제)과 문화재청(청장 이건우)은 1일 해인사에서 선각 주지사님, 심의조 합천군수, 해인사와 행정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문화재청은 올 연말까지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보유한 전국 66개 사찰내 목조건축물(목조건축물)과 산림 사이에 20~25m 정도의 이격공간을 뒀 산불발생때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문화재 산불피해 예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30일 오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틀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국제산림협력과 국내기업의 해외조림 투자 확대를 위하여 캄보디아 쇼쿤(TY, Sokhun) 산림청장을 초청,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조림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